

“ 남(他者)을 위한 교회 ”

■ 이종윤 원로목사

교회 갱신이 선교를 하는데 필요불가결한 요소라는 것은 오늘날의 일반적 견해다. 그러나 이 갱신의 목표에 대해서는 견해가 일치되지 못한다. 흔히 교회의 지도자들은 교회의 빈 좌석을 채우는 것으로 갱신의 목표를 삼기도 한다. 목사는 자기의 수고의 대가가 눈에 보이는 구체적 열매로 나타나기를 갈망한다. 이러한 바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며 우리 대다수가 그러한 소원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 갱신을 위한 노력의 배후에 있는 기본 동기가 되어서는 안된다. 교회 확장을 위하여 구조 갱신을 추구해야 한다면 성경 원리와는 배치되기 때문이다. 교회는 교회 자체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남(他者)을 위한 교회, 하나님의 교회여야 한다.

성경의 하나님은 보내시는 하나님(sending God)이다. 하나님은 예언자를 파송하시고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 아들을 통하여 성령도 보내셨고 성령에 의해 사도들을 파송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목회에 참여한다는 것은 역사 속에 현존하시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자기의 목적을 수행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함으로써 유산으로 물려받은 교회가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의 선교에 봉사하고 있는지를 자문해 보아야 한다. 교회들이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난 하나님의 목회의 형태에 진실하다면 그들은 마땅히 종의 형태를 지녀야 한다. 그 성육신 사건은 동시에 제도적인 형태에서 새로운 형태로 대체할 유연성을 요구한다. 즉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는 얻으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함의성을 교회가 받아들일 자세를 갖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목적 즉 하나님 목회의 궁극적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며 그 나라의 내용은 의(義)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그 나라는 의와 평강(shalom)과 희락이다. 이 샬롬은 상호 인격적 관계 속에서 생기는 사건이다. 그것은 상황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사로서 이것은 모든 피조물의 잠재적 가능성의 실현이며 피조물의 궁극적 화해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를 포함한다.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활동하시면서 의와 샬롬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교회의 사명은 이러한 징조를 알아차리고 지적해 주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시는 일을 깨닫고 선포하는 일 외에 교회가 무슨 다른 일을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어느 특정 지역, 어느 한 민족, 어느 특정교회에 속박될 수 없음도 깨달아야 한다. 변하는 세상에서 교회는 변치않는 영원한 복음을 들고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입력구조(come-structure)에서 출력구조(go-structure)로 전환시켜야 한다. 출력구조란 교회영역을 떠나서 세상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출력(going)이란 자체확장의 모든 관념을 버리는 뜻이고 교인수나 교회 프로그램의 성공에 관심을 갖기보다 남(他者)을 위한 종의 형태의 생활방식을 채택하는 것이다. 성장제일주의를 표방하고 달려온 한국교회는 그 안에 무리(crowds)는 있으나 고난 받는 그리스도를 쫓는 제자가 없는 교회가 되어 걸만 요란한 속된 강경처럼 되어 버렸다.

뒷면으로 계속 ➡

앞면에서 계속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처럼 자신을 주는 교회(Self-giving Church)요 남(他者)을 위한 교회여야 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한다. 남(他者)을 위한 교회는 재정적 또는 인력자원을 남(他者)을 위해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부요했으나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이 세상 재물에 부요한 교회들은 자신들이 종의 형태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목회에 참여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전 소유를 바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자신에게 물어야 할 것이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심정으로 교회 예산의 60%를 밖으로 남(他者)을 위해 지출하는 교회, 잘 훈련된 일꾼을 개척교회와 세상 앞에 파송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라 할 수 있다.

-한국장로신문 [제1354호] 2013년 2월 2일 발매-

English Worship Service	
[Room 802, 11:20 am]	[Preacher : Rev. Euichang Kim, PhD] [Presider : Deacon Kichan Yoo]
* Call to Worship	John 4:24 Presider
* The Apostles' Creed	Congregation
* Doxology	1 Congregation
Congregational Prayer	Senior Deaconess Ae Soon Jang
Hymn	2 Congregation
Scripture Reading	1 Cor 6:1-7 Presider
Welcome/Fellowship	Congregation
Offering	Congregation
* Offering Hymn	50 Congregation
* Offering Prayer	Rev. Euichang Kim
* Offering Anthem	Congregation
Sermon	“Why Not Rather Be?” Rev. Euichang Kim
* Hymn	488 Congregation
* Benediction	Preacher
* Lord's Prayer Song	635 Congregation
(* Please stand if you are available)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 QR코드
------------------------	---	---------------

부 목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교육전도사 김은숙 박미라 선교사 전광혜(사이사), 이은진(김해정, 양재성)이현주(카자흐스탄) 스프로토바로이, 조남혜 (방글라데시), 이재울(박병진)김보디아, 전호진(미얀마), 조병연(김희정, 우상식)김정옥, 이삭, 비스파파, 사지, 에녹(인도), 정상진(홍성임)필리우,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이재훈(박재연)미디카스 카르, 김용진(황경혜)말라위, 김영호(서항정)러시아, 허창범(한미순)일본, 김낙형-오정녀(케냐), 김종일(백순미)타피노동자, 필리핀, 프란시스코, 수레시, 수반석, 이경연, 일로롱, 비사누벤도, 보디소프, 린롱, 수린존(방글라데시), 박영성(총회), 강태식, 윤영모, 이금순, 김영철(근교)	협동목사 김의창 심우진 전재홍
---	-------------------------

	<p>천국시민 양성 · 만민에게 전도 · 빈약한 자 구제</p> <p>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p> <p>SEOUL PRESBYTERIAN CHURCH</p> <p>원로목사 이종윤 Emeritus Pastor Lee Jong-Yun, Ph. D., D.D., D. D.</p> <p>135-835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210 Tel.558-1106 / Fax.558-2107 210 Daechi-dong Gangnam-gu Seoul, Korea http://www.iseoulchurch.or.kr/</p>
--	---

“ 인간은 백조인가, 흑조인가? ”

■ 롬 7:18~25

인간은 선한 존재일까요? 아니면 악한 존재일까요?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유대교의 인간론은 명확한 답을 줍니다. 유대교 랍비들은 인간의 내면에는 선한 성향과 악한 성향이 공존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악한 성향이 훨씬 강해서 자연 상태의 인간은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창 6:5)

1. 인간의 근본적 문제와 구원의 길
 악한 성향은 그 자체적으로 역기능도 있지만 놀랍게도 순기능도 있습니다. 악한 성향은 욕망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에는 명예적인 것, 경제적인 것, 그리고 성적인 욕망도 포함하고 있는데 욕망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인간이 자신의 욕망을 충족함은 죄가 될 수 없으며 선한 것이라 할 수 있지만, 욕망에 사로 잡혀 포로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방식으로, 또는 율법을 넘어 죄를 짓게 됨으로 욕망은 제어할 수 없는 역기능이 존재하게 됩니다. 악한 성향이야말로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인간 스스로는 이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랍비들은 인간의 구원은 위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 구원의 길은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유대교가 말하는 구원론은 “내가 율법을 좇아 행하면 곧 그것이 구원의 길이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인간론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2. 로마서 7장의 비관적 인간론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해 그 누구보다 박식했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행하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안에 두 가지의 힘이 대치하고 있는데 하나는 율법을 지키는 힘이고, 또 하나는 자기 속에 거하는 죄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죄가 훨씬 더 힘이 세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자세히 알고 있고, 율법대로의 행함을 원하고 있어도 사람은 여전히 죄의 문에서 풀려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교에서는 악한 성향, 곧 욕망의 문제가 율법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했지만, 사도 바울은 율법이 결코 욕망의 치료약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한 다른 법이 마음의 법과 싸워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사람을 사로잡는 것을 본다” (롬 7:22-23)라고 비관적인 인간론을 펼칩니다.

3. 진정한 구원의 길은 무엇인가? : 성령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대해 대부분 비관적인 것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도 여전히 의의 길로 나가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은 구원의 길이 아니며 더욱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의 세력에 재배를 받고 있는 인간들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인간에게는 그 같은 능력이 없다고 분명하게 이야기 합니다. 그러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롬 7:24)라고 탄식합니다. 죽음의 세력에 지배된 자신을 누군가 구원해 달라고 하는 간절한 절규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으로 알고, 이것을 성령으로 지칭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롬 8:2). 또한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면 내가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고 합니다. 성령이야말로 내 안에 있는 욕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누구나 예외 없이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거주하시며 자생하고 있는 욕망과 대치하는데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요즈음 이 영적 전쟁이라는 말이 본래의 뜻과는 다르게 사용되는 것을 종종 보게 되는데 성령이 말씀하시는 영적 전쟁은 사람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욕망과 성령님의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도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5:16).

맺는 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가피하게 겪는 영적 전쟁은 천국에 가서야 비로소 끝나게 될 것입니다. 영광의 빛난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될 때, 더 이상 욕망의 목소리를 듣게 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그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구원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인간론은 자극히 비관론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복음을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시고 성령을 좇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 김철홍 목사 설교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찬 양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esider	Prayer
I 오전 9시	장석남 목사	송인권 장로
II 오전 11시 20분	조원영 목사	안인호 장로
III 오후 2시	서명철 목사	인 도 자

오후 5시 인도, 설교: 서명철 목사

목 도 다 함 께
 성 시 갈 2:20 인 도 자
 찬 송 313(352) 다 함 께
 기 도 박광식 집사
 성 경 빌 1:19-26 인 도 자
 흥해작전 발대식 말 은 이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살든지 죽든지“ ... 설 교 자
 * 찬 송 341(367) 다 함 께
 * 축 도 설 교 자
 * 주기도송 다 함 께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예배예의 부름 Call to Worship시 24:3-4...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찬 송 Hymn3(2)..... 다 함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함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15(시 27)... 다 함 께
 * 송 영 Doxology 1(1) ... 다 함 께
 기 도 Prayer 말 은 이
 찬 송 Hymn68(32)... 다 함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벧후 1:3-4...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함 께
 봉 헌 Offering 다 함 께
 * 봉헌송 Offering Hymn634(70) ... 다 함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 도 자
 찬 양 Anthem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함 께
 설 교 Sermon ...“하나님은 인간처럼,

오후 7시 ·인도, 설교: 조원영 목사

인간은 하나님처럼“... 김철홍 목사
 * 찬 송 Hymn289(208)... 다 함 께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함 께

오후 5시30분 피아니스트: 흥해란 김양안 박수강 김복희2

설 교 서명철 목사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헌 금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부	가브리엘	백경화	박준호	박승기	윤주일	가브리엘		
II부	할렐루야	류충기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앤드벨	송재월	
III부	임마누엘	유태왕	김윤지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임범창	안호주	박수강	윤주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롬 7:25)		
영어예배	예루살렘				지난주 성구			
수요 I부								
수요 II부	은 빛	박래경	김윤지	흥해란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11시20분	8층(802호)
수 요 예 배	II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본당

교회소식

- ◆ 모임
 - 전도위원회(각 전도회장, 선교회 회장) / 2일(주) 2부 예배 후 오후 1시 101호
 - 2019년 흥해작전 참모회의 / 2일(주) 3부 예배 후 후문 야외(한티공원쪽)
 - 교구위원회(각 교구장, 부교구장, 간사) 모임 / 2일(주) 3부 예배 후 101호
 - 경기당회 / 5일(수) 수요예배 후 104호
- ◆ 알 람
 - 101호 예배 및 부서 모임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9시-10시 / 신앙강좌부: 주일 오후 12시40분
 -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 403호 예배
영아부: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 602호 부서 모임
청년2부(다락방모임):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새가족부: 주일 오전 10시20분
 - 603호 부서 모임
소망부: 주일 오전 10시-11시, 오후 1시-2시 / 청년1부(다락방모임):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609호
에바다부 성경공부: 주일 오후 1시-2시30분
 - 701호 예배
유초등부 연합 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706호 예배
유아, 유치부 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802호 예배
영어예배부: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902호
디아스포라부 성경공부: 주일 오후 1시-2시
 - 금주 수요예배는 오후 7시, 101호에서 한 번 드립니다.
 - 흥해작전 / 2019년 흥해작전이 6일(목)부터 25일(화)까지 17일간(주일 제외) 계속됩니다. 흥해작전 새벽기도회는 6-15, 24-25일은 5시30분에, 17-22일은 5시에 시작합니다. 새벽을 깨우고 나와서 국가와 민족, 교회와 개인과 가정을 위해 힘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제: 영원한 위로
강사: 6.6(목)-8(토) 서명철 목사 6.10(월)-15(토) 장석남 목사
6.17(월)-22(토) 서창원 목사 6.24(월)-25(화) 조원영 목사
 - 세례식 문답 실시 예정 / 6월 세례식이 6월 16일(주) 저녁찬양 예배 시 있습니다. 세례/입교/개종/ 유아세례/대상자로서 문답청원서를 작성 제출하신 분은 6월 9일(주) 오후 1시 20분까지 105호로 참석 부탁드립니다.
오후 1시 30분부터는 문답교육 오후 2시에는 문답이 있을 예정입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례교육부 010-7743-3223으로 문의바람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p>앞면에서 계속</p> <p>14. 의료 상담 / 이번주 상담은 노계현(안과), 김동준(내과) 입니다. 주일 오전 10시10분-오전11시까지 다음주 상담은 경현구(치과), 노선균(홍부외과) 입니다.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의료 상담을 합니다. * 전화 예약 010-2728-5939</p> <p>15. 상담 안내 / 법률, 세무, 가정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10시30분-오후 4시 (310호) * 전화 예약 010-2376-3892</p> <p>◆ 장 레</p> <p>1. 故 최정숙 권사(9교구 박용일 집사의 모친, 최성희 집사의 시모) / 27일(월) 별세, 29일(수) 천국환송예배</p>
--

지난주 출석현황				
주일1,2,3부	찬양예배	교회학교	주일예배 합계	수요예배
880명	236명	192명	1,308명	142명

수입, 지출 내역보고(5/26)		(단위 : ₩)	
월 일	적 요	수 입	지 출
5월 26일	헌 금	34,883,740	
	말씀봉사비		18,010,000
	찬양대사례,운영비		13,476,000
	급 여		33,084,000
	교회학교교육비		10,270,000
	선 교 비		300,000
	구 제 비		400,000
	출 판 비		250,000
	인 건 비		6,122,600
	복리후생비		127,400
	통 신 비		143,320
	수도광열비		2,200
	차량유지비		2,885,137
	소모품비		584,000
	잡 비		90,100
	세금과공과		153,050
	환경유지비		295,600
	수선유지비		298,100
	식당운영비		1,244,220
	합 계	34,883,740	87,735,727